

온 교인이 실천하는 “탄소 줄이기”



나무는 공기를 정화하고, 그늘을 제공하며, 토양 침식을 방지합니다. 개인 마당이 있다면 작은 나무 심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번의 나무 심기로 150kg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 운송될 때 운송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선 운송 시간이 적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란다나 마당이 있다면 텃밭을 가꾸 작물을 직접 키워보세요.



지붕 등에서 흐르는 빗물을 수조에 저장했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빗물통 (rain barrel)을 만들어보세요. 저장한 빗물은 대부분 텃밭의 채소를 재배 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도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불 연기는 초미세 먼지로 일산화 탄소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가스의 복합 혼합물입니다. Furnace air filter MERV 13-16 와 같은 필터를 사용하여 실내로 들어오는 연기 입자를 95%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